장성군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에서 상생부문 장년분야 표창을 수상했다. /장성군

장성군, '대한민국 상생발전대상' 수상

3년간 귀농귀촌인 연 평균 1000명↑

장성군은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상생발전 대상'에서 상생부문 장년분야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전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한국경제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은 지역사회의 상생과 성장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을 통해 상생 발전 활성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을 도모한다.

앞선 11월, 대한민국 상생발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단장)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방향성과 적절성, 혁신성, 차별성, 미래확장성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장성군은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발전을 높이 평가받으며 장년분야(노후를 투자하기 좋은 고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와 인접한데다 도시민 농촌유치사업과 우수 창업농 육성사업, 직거래 장터 확대 운영 등 다양한 귀농정책을 펼치고 있어 장성군 귀농귀촌 인구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1000명 이상 증가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귀농귀촌을 통해 장성군에 유입된 인구는 7320여명이며 현재 장성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에는 귀농귀촌 목표치(210가구)보다 322%를 초과 달성(678가구)했다. 아울러 장성군은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기업, 유관기관 등이 활발하게 협업하며 상생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세 번에 걸친 가을태풍을 극복하고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개최해 100만 방문을 달성하는 등 '거버넌스'는 장성군의 성공에 큰 원동력이다. /전남=김태수 기자

광주시, 세계인권선언 맞아 기념주간 운영

광주광역시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하며 인권정책 토론회, 기념식, 인권작품 수상작 전시, 인권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5일에는 '광주인권기구와 인권운동 방향'을 주제로 인권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11월 29일 '여성, 청소년 관련 광주시 인권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9일 오후3시에는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5월 유가족으로 구성된 광주트라우마센터 '소나무합창단' 공연과 극단 신명의 5·18기념극인 '언젠가, 봄날엔'의 일부 공연을 시작으로 '영상으로 보는 올해의 인권현장'과 인권·평화를 노래하는 강허달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영상으로 보는 올해의 인권현장'은 영상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등 올해 인권 관련 이슈를 공감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념식장 앞에서는 창작글, 그래픽 등 올해 인권작품 수상작 19점을 포함해 역대 수상작을 전시한다. 10일부터 13일까지는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전시한다.

12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영화 '가버나움'을 상영한다. 열 두 살 난민 소년 자인을 통해 시리아 난민의 삶과 아동학대를 다룬 화제작으로 올해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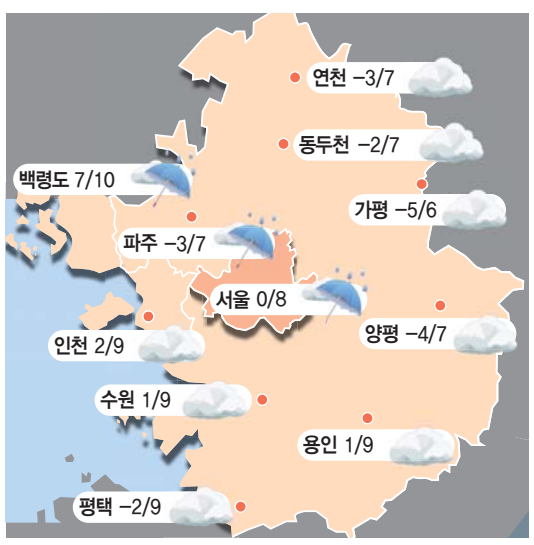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34 | 해짐 / 17:14

12월 9일(月)
음력 : 11월 13일

수도권 날씨 0 ~ 8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내년 선거비 제한액 1.7억:2.2억

〈총선〉 〈광주〉 〈전남〉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주 동남을, 전남 고흥 가장 많아

인구수, 소비자물가 변동률 적용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은 광주가 평균 1억7000만원·전남이 2억2700만원이다.

전남 제한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 같은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광주에서는 동남을이 1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1억5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지역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 2억93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여수을 1억6000만원이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해당 지역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산정한다.

선거 비용이란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비례대표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허위로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을 선거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확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구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광주는 북구을이 1만155통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5987통으로 가장 적다.

전남에서는 장흥이 9556통으로 가장 많고 여수을이 6179통으로 가장 적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도시 곳곳 크리스마스 분위기… 담양산타축제

유명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상점특색 살린 다채로운 경관조명

전남 담양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축제가 열린다. /담양군

전남 담양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축제가 열린다.

담양군은 8일 "담양읍 원도심과 작은 유럽마을 '메타프로방스' 일원을 중심으로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산타와 나누는 겨울이야기', 제3회 담양산타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담양군이 주최하고 담양산타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산타축제는 담양만의 특색이 있는 크리스마스마켓,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와 야간경관, 산타 포토존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연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로 세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메타프로방스와 중앙공원 등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야간경관과 스탬프투어 등 담양의 유명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원도심 중앙공원에는 벤치에 감성문구를 담은 스토리텔링형 경관조명과 플라스틱 박스를 재활용한 대형 산타, 크리스마스카드 포토존, 수목조명 트리 등 성탄 느낌 가득한 정원을 조성했으며, 이 곳에서 마켓과 버스킹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타프로방스에서는 진입로 정면과 프로방스 내부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메타프로방스 곳곳에 산타 조형물, 사랑의 열쇠길과 대형트리 터널이 관광객을 맞이하며, 메타프로방스의 각 상가도 상점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경관조명을 이국적 분위기에 맞게 꾸며 거리를 수놓는다.

개막식은 13일 오후 6시 메타프로방스 산타방 주무대에서 열리며 개막퍼포먼스와 미스트롯 출신 가수 설하윤이 출연한다. 주말과 크리스마스 때는 '하늘에서 선물이 내리면' 이벤트, 캐릭터 퍼레이드, 15초 셀프영상, 버스킹, 담빛 라디오스타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젊은 층은 물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특히, 평일 오후에도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산타와 게임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황금상자를 열어라', 원도심과 프로방스를 다니며 스탬프를 모아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 스탬프 포인트 인증샷 무료 사진인화, 담양읍 상가 영수증 이벤트도 마련됐다. 아울러 담빛길과 해동주조장 등 원도심에서도 경관조명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축제추진위 관계자는 "연말과 겨울 여행도 담양으로 올 수 있도록 담양다움의 겨울 이미지를 살린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축제가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축제 기간 담양읍 전체를 크리스마스마켓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김태수 기자

전남도, 수출 확대 위한 중화권 바이어 초청… 770만달러 MOU

전남도는 2019년 중화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어 145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37건, 770만 달러의 수출의향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호텔 목포에서 3일간 열린 수출상담회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하방국면에 적극 대응,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18명, 대만 1명, 홍콩 1명 등 20명의 중화권 바이어를 초청해 이뤄졌다.

중화권 바이어가 관심을 보인 화장품, 식료품 등 전남지역 50여 수출기업이 참가했다. 바이어와 참가 업체와의 1대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일부 바이어는 상담에 응한 업체의 회사를 방문해 제품 생산 현장을 견학했다.

총 145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완도 다시마전복수산의 86만 달러의 현장계약 체결 등을 포함해 37건, 770만 달러의 계약(MOU 포함)이 성사됐다.

선경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화권 바이어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우리 제품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과 바이어와의 만남 기회를 확대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